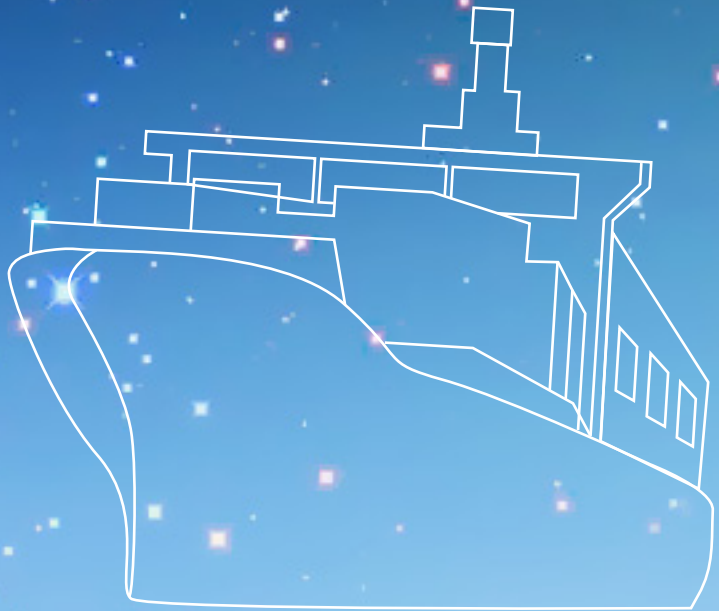


GFEZ

Webzine 2012.10 Vol.14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Contents

03 Message

-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홍보

05 Hot Issue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에 이용재 위원 선출
- 광양경제청, 대만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광양경제청, 여수엑스포 홍보 효과 '톡톡', 4천여명 찾아
- 주한 일본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07 Invest in GFEZ

- 동북아의 해양관광 허브, GFEZ 화양지구

10 Photo News

- GFEZ 주요 포토뉴스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 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홍보



일본기업들은 고비용 구조와 엔고 지속, 신흥국과의 경쟁 등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 가중 등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중국 등 해외신흥시장 현지판매 전략을 위해 2010년 가을부터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대지진 이후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주요 금융 및 경제기관을 비롯하여 기업들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을 천혜의 산업입지와 관광자원을 갖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하 'GFEZ')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청은 지난 2004년 개청 이후 꾸준히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일본 현지의 관련기업인을 초청하여 GFEZ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일본지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우리청은 일본의 유망기업 2개사와 GFEZ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일본 기업의 GFEZ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재 투자기업 교류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GFEZ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 유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유럽 등 FTA체결에 따른 일본과 한국기업간의 기술교류, 신규시장 진출기회를 적극 홍보하여 유망기업 발굴 추진과 한일 기업인 초청 간담회 개최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기업의 유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일본기업을 유치하면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는 점과 선진기술의 유입 촉진 및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발, 물동량 증대,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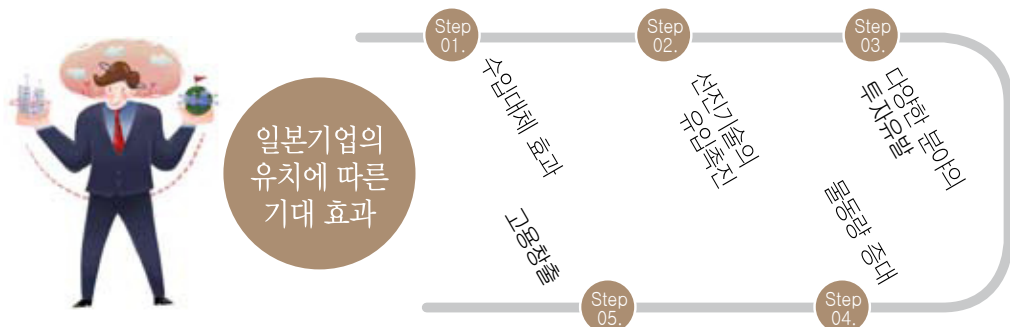
대지진 이후 일본의 대체생산·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는 좋은 기회지만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커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일 양국 간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입지 분산투자 등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보여지는 일본기업들의 반응은 한·일 양국 간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입지의 분산투자, 자유무역협정 (FTA)을 이용한 수출입업체의 유지와 같은 통합 패키지로서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많으며 가시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추후 개발될 산업단지에는 외국 인 전용공단 및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으로 저렴한 부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GFEZ가 명실공히 동북아 제조업과 물류의 거점으로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에도 GFEZ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기업 투자의 최적지로서 GFEZ를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희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에 이용재 위원 선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매진할 것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지난 11일 제54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6대 의장 및 제8대 부의장 선출과 조직개편을 위한 조합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6대 조합회의 의장에 이용재 전라남도의원(광양)이, 제8대 조합회의 부의장에 황종원 경상남도의원(하동)이 조합회의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용재 위원은 광양상공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제9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경제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평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개발 및 투자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의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일류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서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관련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5건과 '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년도 도비분담금 요구안을 심의·의결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조합규약 및 조합규정 제·개정안, 예·결산안,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전남도 7인, 경남도 3인 그리고 지식경제부 1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경제청, 대만 투자유치 활동 전개



광양항 활성화 위해 대만 타이페이, 카오슁에서 투자설명회 열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 대만지역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만의 중심지인 타이페이와 대만 최대 항만을 보유한 카오슁에서 광양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대만 국제 물류 및 공급연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협회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도 체결하게 된다. 또한, 대만 카오슁항무공사, 대외무역 발전협회, 서울대만무역센터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광양만권에 대만기업의 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8월15일부터 8월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7회 광양항 국제포럼에 국제운송주선업협회(FIATA) 양서평 부회장을 초청해 대만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관한 주제발표와 업무협력을 진행하며 우호관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이희봉 청장은 “대만지역에서 유발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환적 물동량은 물론 대만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을 광양항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한·유럽 FTA 등을 활용한 관세감면 혜택 등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알리는 계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만 수출 총액의 3.8%, 수입 총액의 6.4%를 차지하는 교역규모 4위 국가로, 주로 대만은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경유, 석유 등의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과 우리나라 항만의 연간 처리 물동량은 31만TEU 규모로, 이 중 약 23%인 7만TEU 가량이 광양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여수엑스포 홍보 효과 ‘톡톡’ 4천여명 찾아



총56회에 걸쳐, 유럽·미국·일본 등 글로벌 기업관계자와 투자상담 펼쳐

여수엑스포가 8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3개월간의 축제를 마무리한 가운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엑스포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개막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동안 총56회에 걸쳐, 각국의 경제단체, 기업인 등 1003명의 외국인과 3064명의 내국인이 광양 만권을 찾아 투자상담과 현장 투어를 가졌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유럽·중국·일본 등 국내외 기업을 찾아다니며 펼친, 107회의 홍보활동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5월 방문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6월에 방문한 서울재팬클럽 회원사 등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노르웨이의 우수한 기업들은 광양만권이 보유한 우수한 물류 인프라, 원자재 공급의 용이성, 뛰어난 자연환경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여기에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도 이어져, 호주의 부동산투자기업과 1억 달러, 일본의 철강 관련기업과 28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얻게 된 글로벌 이미지와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 물류 인프라 개선 효과는 향후 타깃기업 유치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희봉 청장은 “국제 행사를 활용한 투자환경 홍보와 투자유치 성과가 연계되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며 “내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중에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해 광양만권 활성화에 주력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여수엑스포를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 주신후 투자유치본부장을 단장으로 미주·중국, 유럽·일본, 홍보 등 3개팀, 30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을 조직해 활동해 왔다.

주한 일본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일본기업인들 광양만권에 관심있다!

광양경제청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주한 일본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재팬클럽 다카스기 노부아 부이사장 등 관계자 23명을 초청해 GFEZ를 비롯한 여수세계박람회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일본기업을 둘러보는 투자설명회 행사를 갖고,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일본기업의 투자 성공사례로 꼽히는 여수국가산단의 금호미쓰이화학과 순천의 신광마이크로애क्ट로닉스사를 방문해 한국 내 투자·경영 정보를 실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서울재팬클럽은 1997년 설립되어 1,700명의 회원과 법인 359개사를 둔 국내 최대의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으로 한·일간 투자교류와 무역상담, 일본기업 정보 제공 등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희봉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양만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광양항 등 뛰어난 산업인프라를 보유한 매력적인 경제특구이다.”며, “앞으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일본기업의 강점인 첨단·부품·소재분야의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의 해양관광 허브 화양지구



여수 화양면 일원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마리나비치 지구, 골프아일랜드 지구, 포레스트밸리 지구, 힐탑 지구, 마운틴탑 지구 등 5개 테마지구 9.99km²(육지부 9.79km², 공유수면 0.20km²)를 2015년까지 1조 4,433억원이 투입되어 국제적인 관광레저와 해양스포츠,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GFEZ 화양지구는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목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은 도시관리계획,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는 등 성공적인 화양지구개발을 위해 그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2007년 12월 29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 테마별 개발계획



화양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2004년 7월 5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 최초로 민간기업인 일상해양산업(주)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 으며, 일상해양산업(주)은 개발부지 총 면적 9.99km²에 약 1조 4,433억원을 투자하여 마리나, 골프장(36홀), 세계민속촌, 아쿠아파크, 스포츠전지훈련센터 등 해양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게 되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법들이 도입되며,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따른 관광기반시설확충과 더불어 조각공원, 세계민속촌, 스파, 플라워가든, 산악레저월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사계절형 종합해양관광 레저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한편,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2조 4,000억원, 소득유발효과 4,800억원, 부가가지 유발효과 1조원 등 총 3조 8,8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약 26,0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등 여수 화양지구개발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아일랜드 지구

골프아일랜드 지구는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1.98km에 1,327억원을 투자하여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3년까지 커티지 30동(60실)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골프아일랜드가 완료되면 여수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디오션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해 최근 착공한 거문지도 호텔 리조트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와 섬을 잇는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리나비치 지구

마리나비치 지구에는 공유수면 약 20만㎡를 매립하여 마리나 시설과 주변에 마린스포츠센터, 아쿠아파크, 해안사가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수려한 해양경관이 양호한 해안을 따라 숙박시설 용지를 계획하여 5성급 고급호텔과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그리고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 형성된 구릉지 지역에 18홀의 골프장을 계획하고 그 주변으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등이 조성된다.



포레스트밸리 지구

포레스트밸리 지구는 북동측의 산림지역으로 여러 능선과 계곡들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관, 음식거리, 미니어쳐파크 등을 갖춘 세계민속촌, 바데풀, 로마식 온천탕, 폭포탕, 해수치료, 마사지 등의 스파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자연스러운 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원과 세계의 정원 등을 갖춘 플라워가든이 조성되어 가족단위의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꽃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진입부에 관리사무소 및 안내센터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힐탑 지구

힐탑 지구는 산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절기까지 훈련이 가능한 각종 연수시설, 스포츠 전지훈련 시설 등 교육·훈련시설 위주로 조성된다. 산 능선을 따라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을 위한 숙박시설을 배치하고, 해안경관이 양호한 능선부에 편익시설로 전망레스토랑 등의 상가 및 조각공원이 조성된다.



마운틴탑 지구

마운틴탑 지구는 다도해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조망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늘공원과 연계한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시설을 배치하여 단지전체의 전망과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개발된다. 그리고 봉화산 정상 능선부에 산책로 및 휴게공간이 조성되는데, 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산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다. 마운틴탑 지구는 마리나비치 지구와 포레스트밸리 지구를 케이블카로 연결시켜주는 정상부의 정거장 역할로도 활용된다.



이와 같이 GFEZ 화양지구가 여수시 소호동 일원에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션리조트 특구와 함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만권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경제부1차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현장 방문
(2012.09.27)



전국경제자유구역 실무협의회 개최
(2012.09.21)



GFEZ,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012.09.20)



GFEZ, 「현안해결 TF팀」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안 발굴나서 (2012.09.20)



GFEZ 직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2.09.17)



제54회 조합회의 임시회
(2012.09.17)



대만국제물류 및 공급연협회간 상호협력 MOU체결
(2012.08.29)



2013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2012.08.23)

Touch GFEZ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하십시오!



편리한 교통인프라

동북아 시장의 관문으로 항만·항공·도로·철도 등 편리한 접근성



최적의 산업인프라

POSCO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 등 풍부한 산업단지



최대의 인센티브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공



우수한 정주환경

최적의 주거·교육·의료시설 및 풍부한 관광자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경



발행일 2012년 10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인 이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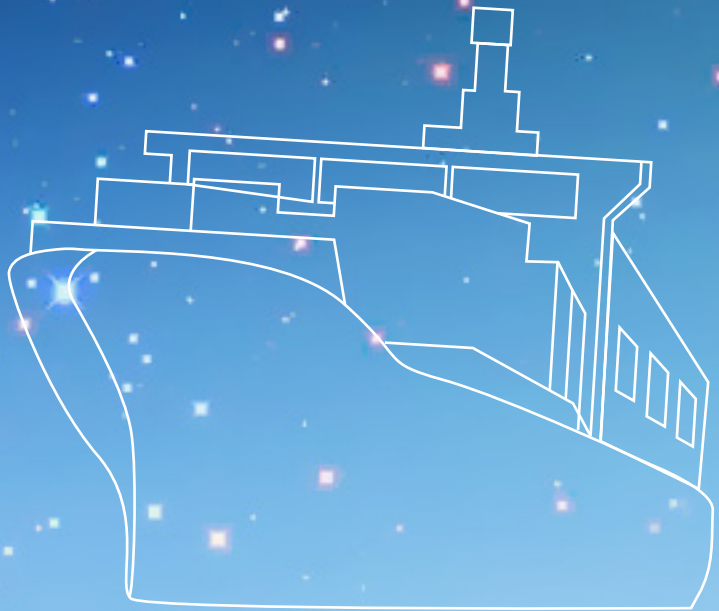
<http://www.gfez.go.kr>



GFEZ

Webzine 2012.10 Vol.14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Contents

03 Message

-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홍보

05 Hot Issue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에 이용재 위원 선출
- 광양경제청, 대만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광양경제청, 여수엑스포 홍보 효과 '톡톡', 4천여명 찾아
- 주한 일본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07 Invest in GFEZ

- 동북아의 해양관광 허브, GFEZ 화양지구

10 Photo News

- GFEZ 주요 포토뉴스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 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홍보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본기업들은 고비용 구조와 엔고 지속, 신흥국과의 경쟁 등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 가중 등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중국 등 해외신흥시장 현지판매 전략을 위해 2010년 가을부터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대지진 이후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주요 금융 및 경제기관을 비롯하여 기업들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을 천혜의 산업입지와 관광자원을 갖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하 'GFEZ')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청은 지난 2004년 개청 이후 꾸준히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일본 현지의 관련기업인을 초청하여 GFEZ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일본지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우리청은 일본의 유망기업 2개사와 GFEZ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일본 기업의 GFEZ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재 투자기업 교류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GFEZ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 유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유럽 등 FTA체결에 따른 일본과 한국기업간의 기술교류, 신규시장 진출기회를 적극 홍보하여 유망기업 발굴 추진과 한일 기업인 초청 간담회 개최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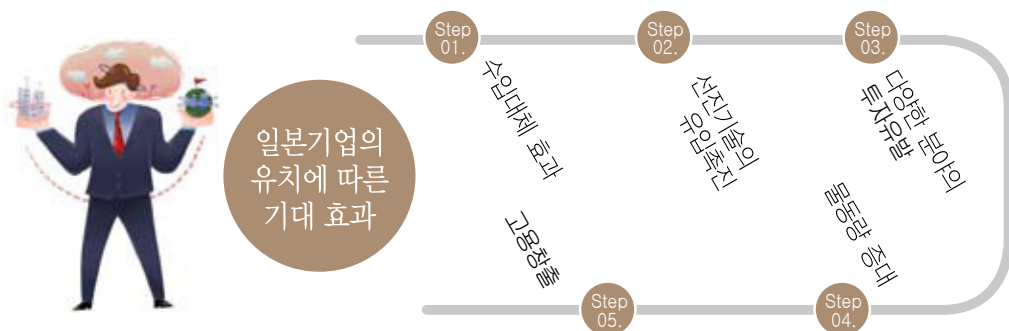
일본기업의 유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일본기업을 유치하면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는 점과 선진기술의 유입 촉진 및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발, 물동량 증대,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지진 이후 일본의 대체생산·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는 좋은 기회지만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커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일 양국 간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입지 분산투자 등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보여지는 일본기업들의 반응은 한·일 양국 간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입지의 분산투자, 자유무역협정 (FTA)을 이용한 수출입업체의 유치와 같은 통합 패키지로서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많으며 가시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추후 개발될 산업단지에는 외국 인 전용공단 및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으로 저렴한 부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GFEZ가 명실공히 동북아 제조업과 물류의 거점으로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에도 GFEZ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기업 투자의 최적지로서 GFEZ를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에 이용재 위원 선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매진할 것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지난 11일 제54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6대 의장 및 제8대 부의장 선출과 조직개편을 위한 조합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6대 조합회의 의장에 이용재 전라남도의원(광양)이, 제8대 조합회의 부의장에 황종원 경상남도의원(하동)이 조합회의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용재 위원은 광양상공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제9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경제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평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개발 및 투자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의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일류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서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관련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5건과 '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년도 도비분담금 요구안을 심의·의결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조합규약 및 조합규정 제·개정안, 예·결산안,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전남도 7인, 경남도 3인 그리고 지식경제부 1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경제청, 대만 투자유치 활동 전개



광양항 활성화 위해 대만 타이페이, 카오슁에서 투자설명회 열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 대만지역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만의 중심지인 타이페이와 대만 최대 항만을 보유한 카오슁에서 광양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대만 국제 물류 및 공급연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협회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도 체결하게 된다. 또한, 대만 카오슁항무공사, 대외무역 발전협회, 서울대만무역센터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광양만권에 대만기업의 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8월15일부터 8월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7회 광양항 국제포럼에 국제운송주선업협회(FIATA) 양서평 부회장을 초청해 대만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관한 주제발표와 업무협력을 진행하며 우호관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이희봉 청장은 “대만지역에서 유발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환적 물동량은 물론 대만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을 광양항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한·유럽 FTA 등을 활용한 관세감면 혜택 등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알리는 계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만 수출 총액의 3.8%, 수입 총액의 6.4%를 차지하는 교역규모 4위 국가로, 주로 대만은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경유, 석유 등의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과 우리나라 항만의 연간 처리 물동량은 31만TEU 규모로, 이 중 약 23%인 7만TEU 가량이 광양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여수엑스포 홍보 효과 ‘톡톡’ 4천여명 찾아



총56회에 걸쳐, 유럽·미국·일본 등 글로벌 기업관계자와 투자상담 펼쳐

여수엑스포가 8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3개월간의 축제를 마무리한 가운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엑스포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개막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동안 총56회에 걸쳐, 각국의 경제단체, 기업인 등 1003명의 외국인과 3064명의 내국인이 광양 만권을 찾아 투자상담과 현장 투어를 가졌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유럽·중국·일본 등 국내외 기업을 찾아다니며 펼친, 107 회의 홍보활동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5월 방문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6월에 방문한 서울재팬클럽 회원사 등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노르웨이의 우수한 기업들은 광양만권이 보유한 우수한 물류 인프라, 원자재 공급의 용이성, 뛰어난 자연환경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여기에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도 이어져, 호주의 부동산투자기업과 1억 달러, 일본의 철강 관련기업과 28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얻게 된 글로벌 이미지와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 물류 인프라 개선 효과는 향후 타깃기업 유치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희봉 청장은 “국제 행사를 활용한 투자환경 홍보와 투자유치 성과가 연계되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며 “내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중에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해 광양만권 활성화에 주력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여수엑스포를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 주신호 투자유치본부장을 단장으로 미주·중국, 유럽·일본, 홍보 등 3개팀, 30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을 조직해 활동해 왔다.

주한 일본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일본기업인들 광양만권에 관심있다!

광양경제청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주한 일본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재팬클럽 다카스기 노부아 부이사장 등 관계자 23명을 초청해 GFEZ를 비롯한 여수세계박람회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일본기업을 둘러보는 투자설명회 행사를 갖고,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일본기업의 투자 성공사례로 꼽히는 여수국가산단의 금호미쓰이화학과 순천의 신광마이크로애क्ट로닉스사를 방문해 한국 내 투자·경영 정보를 실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서울재팬클럽은 1997년 설립되어 1,700명의 회원과 법인 359개사를 둔 국내 최대의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으로 한·일간 투자교류와 무역상담, 일본기업 정보 제공 등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희봉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양만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광양항 등 뛰어난 산업인프라를 보유한 매력적인 경제특구이다.”며, “앞으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일본기업의 강점인 첨단·부품·소재분야의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의 해양관광 허브 화양지구



여수 화양면 일원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마리나비치 지구, 골프아일랜드 지구, 포레스트밸리 지구, 힐탑 지구, 마운틴탑 지구 등 5개 테마지구 9.99km²(육지부 9.79km², 공유수면 0.20km²)를 2015년까지 1조 4,433억원이 투입되어 국제적인 관광레저와 해양스포츠,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GFEZ 화양지구는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목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은 도시관리계획,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는 등 성공적인 화양지구개발을 위해 그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2007년 12월 29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 테마별 개발계획



화양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2004년 7월 5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 최초로 민간기업인 일상해양산업(주)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 으며, 일상해양산업(주)은 개발부지 총 면적 9.99km²에 약 1조 4,433억원을 투자하여 마리나, 골프장(36홀), 세계민속촌, 아쿠아파크, 스포츠전지훈련센터 등 해양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게 되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법들이 도입되며,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따른 관광기반시설확충과 더불어 조각공원, 세계민속촌, 스파, 플라워가든, 산악레저월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사계절형 종합해양관광 레저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한편,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2조 4,000억원, 소득유발효과 4,800억원, 부가가지 유발효과 1조원 등 총 3조 8,8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약 26,0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등 여수 화양지구개발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아일랜드 지구

골프아일랜드 지구는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1.98km에 1,327억원을 투자하여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3년까지 커티지 30동(60실)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골프아일랜드가 완료되면 여수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디오션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해 최근 착공한 거문지도 호텔 리조트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와 섬을 잇는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리나비치 지구

마리나비치 지구에는 공유수면 약 20만㎡를 매립하여 marina 시설과 주변에 마린스포츠센터, 아쿠아파크, 해안사가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수려한 해양경관이 양호한 해안을 따라 숙박시설 용지를 계획하여 5성급 고급호텔과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그리고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 형성된 구릉지 지역에 18홀의 골프장을 계획하고 그 주변으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등이 조성된다.



포레스트밸리 지구

포레스트밸리 지구는 북동측의 산림지역으로 여러 능선과 계곡들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관, 음식거리, 미니어쳐파크 등을 갖춘 세계민속촌, 바데풀, 로마식 온천탕, 폭포탕, 해수치료, 마사지 등의 스파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자연스러운 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원과 세계의 정원 등을 갖춘 플라워가든이 조성되어 가족단위의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꽃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진입부에 관리사무소 및 안내센터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힐탑 지구

힐탑 지구는 산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절기까지 훈련이 가능한 각종 연수시설, 스포츠 전지훈련 시설 등 교육·훈련시설 위주로 조성된다. 산 능선을 따라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을 위한 숙박시설을 배치하고, 해안경관이 양호한 능선부에 편익시설로 전망레스토랑 등의 상가 및 조각공원이 조성된다.



마운틴탑 지구

마운틴탑 지구는 다도해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조망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늘공원과 연계한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시설을 배치하여 단지전체의 전망과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개발된다. 그리고 봉화산 정상 능선부에 산책로 및 휴게공간이 조성되는데, 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산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다. 마운틴탑 지구는 마리나비치 지구와 포레스트밸리 지구를 케이블카로 연결시켜주는 정상부의 정거장 역할로도 활용된다.



이와 같이 GFEZ 화양지구가 여수시 소호동 일원에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션리조트 특구와 함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만권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경제부1차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현장 방문
(2012.09.27)



전국경제자유구역 실무협의회 개최
(2012.09.21)



GFEZ,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012.09.20)



GFEZ, 「현안해결 TF팀」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안 발굴나서 (2012.09.20)



GFEZ 직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2.09.17)



제54회 조합회의 임시회
(2012.09.17)



대만국제물류 및 공급연협회간 상호협력 MOU체결
(2012.08.29)



2013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2012.08.23)

Touch GFEZ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하십시오!



편리한 교통인프라

동북아 시장의 관문으로 항만·항공·도로·철도 등 편리한 접근성



최적의 산업인프라

POSCO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 등 풍부한 산업단지



최대의 인센티브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공



우수한 정주환경

최적의 주거·교육·의료시설 및 풍부한 관광자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경



발행일 2012년 10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인 이희봉

<http://www.gfez.go.kr>

